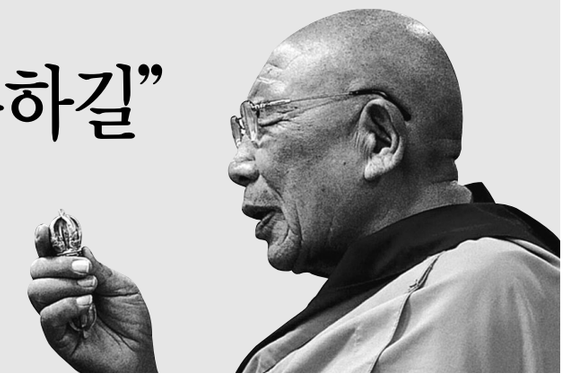
“한국불자 신심 느껴… 三藏 깊이 공부하길”

[특별인터뷰]

티베트 스승 ‘롭상 도르제 린뽀체’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를 필두로 전 세계 곳곳에 티베트 불교가 전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티베트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기기라도 하듯 ‘샤르빠 최제 롭상 도르제 린뽀체(82)’가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파의 최고위 법계인 ‘샤르빠 최제’를 맡은 롭상 도르제 린뽀체는 오는 2021년 한국불교의 종정 개념인 ‘간댄티빠’에 오를 예정이다.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법회가 예정된 바쁜 일정 가운데, 부산시 서구에 위치한 한국티베트불교사원 광성사에서 특별히 린뽀체를 만나 인터뷰했다.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되셨습니까? 또 소감은 어떠신지요?

원래는 대만 불교단체의 초청으로 8월까지 대만에 머무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제자인 소남 스님(광성사 주지)이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한 요청이 있었기에 그에 따라 잠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만의 여름은 너무나 덥고 습해 조금 불편했는데 한국에 오니 날도 크게 덥지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입니다만 많은 사찰을 순례하고, 불자들을 만나보니 과연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가 잘 뿌리내린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자들도 신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신행에 열심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근래에 한국에도 티베트 불교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린뽀체께서 생각하시기에 티베트 불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중국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삼귀의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스승을 포함해 사귀의를 강조하는데요. 이를 두고 오해해서 일각에서는 티베트불교를 라마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올바른 불교가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라밀승인 현교와 금강승인 밀교가 같이 전해집니다. 특히 금강승에서는 스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밀교적인 차원에서 스승을 부처님과 같이 모시는 것이지 라마교라든지, 불교를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승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입멸하셨기에 우리는 눈 밝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한국불자들께서는 열심히 정진 중이시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신앙적으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경을 외는 것은 마치 음식의 맛을 잘 모르고 먹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해 수행하면 불자로서 불교의 진정한 맛을 알고, 수행과 교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경율론 삼장에 있습니다. 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히 지켜야합니다. 그러나 경과 논은 깊이 분석하고 사고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나의 가르침을 잘 분석하고서 따라야지, 나에 대한 신심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해도 살피고 분석해 취사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또 이번 생에 집착하면 불교를 수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야 합니다. 윤회에 들어있는 이상 우리는 이 생이 짧고 무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학에 대한 수학과 수행에 대한 정진이 함께 간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더 발전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롭상 도르제 린뽀체 약력

1937. 동부 티베트 캄 지방의 마르캄에서 출생
1954. 17세에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 데뿡사원으로 출가
1959. 인도 망명 후 당대 최고의 스승들께 사사, 달라이라마의 스승인 링 린뽀체를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79. 겔룩파의 최고 학위인 게쎄 하람빠(불교학 박사) 수석졸업
1985. 규뙤사원 밀교강원에서 밀교 수학
1993. 규뙤사원 호법소임 역임
1996. 달라이라마로부터 동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
2016. 겔룩파 법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샤르빠 최제’에 임명

강원도 ‘여행상품 개발’ 협약

월정사–코레일 청량리역 MOU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는 7월 4일 코레일 청량리역(역장 김명철)과 업무협약을 맺고, KTX 강릉선 개통 이후 증가하는 지역 방문객 수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정사와 청량리역은 여행상품을 개발·진행하고, KTX를 이용해 방문하는 승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 및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홍보 포스터 설치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로스엔젤레스 후원의 밤

자광 스님 2천만원 등 5억원 모금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7월 11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동국대 로스엔젤레스(DULA)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DULA는 1979년 설립 후 1997년 동국대가 인수했다. 이날 이승덕 DULA 총장이 △한국식 한의학 치료구현을 통한 불교 전파 등 비전을 발표했으며, 자광 스님 2000만원 희사를 비롯해 총 4억9700만원이 모연됐다.

신성민 기자



“한국–몽골 장벽 넘어 화합을”

대구 동대사, 몽골 전통 나담축제 열어

천태종 대구 동대사(주지 도산)는 7월 8일 경내 잔디광장에서 몽골의 대표적 민속축제인 ‘나담축제’가 열렸다. 나담축제에는 몽골출신 이주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300여 명이 모여 자국의 전통축제를 즐겼다. 이들은 몽골의 씨름인 ‘부흐’를 비롯해 활쏘기, 팔씨름, 줄다리기 등 몽골 전통 스포츠를 시연하고, 전통음악과 음식으로 향수를 달랬다.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은 “동대사가 대구시민과 몽골인들의 화합을 위한 나눔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인사를 했다.

한편 나담축제는 매년 7월 몽골에서 치러지는 전통축제로 대구마하이주민센터와 대구몽골인친선협회가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빛고을 환경운동 10년 “앞으로 더 많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창립 10주년 기념음악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7월 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0주년 기념음악회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를 개최했다. 음악회서는 정율 스님, 심진 스님, 도신 스님, 정목 스님을 비롯해 나무숲어린이연희단, 무지개선율, 한마음선원합창단, 빛고을콰이어합창단이 등이 출연해 불교음악의 진수를 펼쳐 행사장을 찾은 1,600여 관중을 사로잡았다.

사회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맡았으며, 첫 무대는 정율 스님이 ‘천의 손, 천의 눈, 해탈’ 등의 잔잔한 곡을 들려주며 문을 열었다. 이어 힐링멘토 정목 스님의 ‘생명과 환경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을 일깨웠다.


기념음악회 출연진들이 무대에서 함께 합창하며 환경연대 1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산사음악회에서 천진불들의 무대는 더욱 특별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중창단 무지개선율은 이번 행사 의미를 담고 있는 ‘빛고을 염불나라’ ‘지구를 내 손으로’ 등을 불렀으며, 나무숲어린이연희단은 ‘108배 율동’으로 흥을 돋웠다. 아울러 명상 음악으로 사랑받는 심진 스님과 도신 스님은 수행의 노래를 표현한 음악을 들려줬다.

행사의 마지막 무대는 한마음선원합창단과 빛고을콰이어합창단이 ‘꽃을 바치나이다’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하모니로 선보였으며, 출연자 전원이 ‘아미타불 나의 님’을 합창하면서 무대를 마무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양 보리암, 지장대불 점안

7월 1일, 사부대중 500여 명 참석



대한불교 광선조계종(총무원장 법광)은 7월 1일 본산 양양 보리암에서 지장대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 합창단 축가, 공로자 감사패 수여식 등이 진행됐으며,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장 회암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3부 산사음악회로 마무리됐다. 윤호섭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